

제25대 컴퓨터교육과 학생회
<SoCKET(소켓)>
- 제5회 확대 운영위원회 -

일시: 2023/04/27 오후 11시 08분

회차: 25-05

장소: Zoom 온라인 플랫폼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무/Deep:Running장
서기/악성코드장	문화행사부장	사회부장
선전편집부장/COM_ON장	EGG장	CMD장/COFA장
CE:BA장	HFS장	1학년 과대표
1학년 부과대표	2학년 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3학년 과대표		

총원: 16 출석: 12 결석: 4

■ 보고안건

1. 회장단 보고

2. 집행부 보고

- 1) 문화행사부
- 2) 사회부
- 3) 선전편집부

3. 소모임, 학회 보고

- 1) EGG
- 2) CMD
- 3) CE:BA
- 4) COM_ON
- 5) COFA
- 6) 악성코드
- 7) Deep:Running
- 8) HFS

■ 논의 안건

1. 대동제 부스 도우미
2. 짝조 이벤트
3. 선전편집부 개명
4.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 방식
5. 집행부 사업 추진
6. 학년별 MT 기획 방식

■ 단위별 진행 상황 / 기타 안건

<오후 11시 08분 개회>

[정학생회장] 시작하기 전에 정족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정학생회장 참석하였습니다. 부학생회장님 참석하셨나요?

[부학생회장] 출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다음 총무님 출석하셨나요? 출석 안 하였고요. 다음으로 서기 참석하셨을까요?

[서기/악성코드장]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다음 문화행사부장님 참석하셨나요.

[문화행사부장]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사회부장님 참석하셨나요.

[사회부장] 예.

[정학생회장] 선전편집부장님 참석하셨나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다음 EGG장님 참석하셨나요. 네, 참석하지 못하였고요. 다음으로 CMD장님 참석하셨나요.

[CMD장/COFA장]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다음 CE:BA장님 오늘 안 오셨고 HFS장님 참여하셨나요.

[HFS장] 네 참석했습니다. 다음 1학년 과대표 참석하셨나요.

[1학년 과대표] 네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다음 1학년 부과대표 참석하셨나요.

[1학년 부과대표] 네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다음 2학년 과대표는 불참하셨고, 2학년 부과대표님 참석하셨나요.

[2학년 부과대표] 네 참석했습니다.

[정학생회장] 3학년 과대표님 참석하셨나요. 네, 참석하지 못하였고요. 이렇게 총원 16명 중 출석 11명 결석 5명으로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각 2023년 4월 27일 오후 11시 8분 제5차 컴퓨터 교육과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소는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되고요.

■ 보고안건

1. 회장단 보고

[정학생회장] 먼저 보고안건이 있겠습니다. 회장단 보고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마지막으로 회의한 게 되게 오래전이라서 보고할 게 좀 많은데, 우선 3월 4일에 소모임 홍보를 시작하였고, 3월 8일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발생한 손망실 비용에 대한 재논의 결과 학생 100% 부담으로 결정났습니다. 다음으로 3월 6일 개강 총회를 공고하였고, 3월 13일 총 MT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월 14일 1학년&2학년, 1학년&3학년&4학년 대면식을 공지했습니다. 3월 17일 대면식 추가 모집을 안내했습니다. 3월 21일 1학년&2학년 대면식을 진행했고, 3월 23일 1학년&3학년&4학년 대면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농대장을 23학번 정현우 학우로 선정했습니다. 3월 25일 총 MT 수요조사 연장 공지하였습니다. 3월 27일 개설 희망 전공 과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28일 해오름식 공연에 참여하여 살짝 설렘, 캔디, 넥스트 레벨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4월 12일 중간고사 간식 행사를 공지했습니다. 4월 17일 중간고사 간식 행사를 진행하였고 마친 상태입니다.

2. 집행부 보고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집행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행사부장님 집행부 보고할 것 있을까요.

[문화행사부장] 죄송한데 잠시만 이따 말해도 될까요.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부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장님 보고해주세요.

[사회부장] 저희는 저번에 1차 확대 운영회 회의부터 가장 최근에 했던 4차 확대 운영회 회의 때 요약본을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회장단에 전송했고요. 그 외에는 크게 다른 활동은 없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선전편집부장님 보고해주세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현재는 크게 보고할 안건은 없습니다.

[정학생회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행사부장님 보고해 주세요.

[문화행사부장] 네 저희는 개강하고 지금까지 일단 3월 중순에 총 MT 계획이 나오고부터 3월 쪽 MT 계획을 진행하였고, 4월 8일~9일에 걸쳐서 총 MT를 진행하고 기획하였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되게 오랜만이라서 다들 말씀하시는 거를 깜빡하신 것 같은데 모두 개강 총회 이후로 이제 모든 집행부 부원들 인준 받고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 소모임, 학회 보고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소모임, 학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EGG장님 결석하셨고, CMD장님 보고해주세요.

[CMD장/COFA장] 네 저번 회의 이후로 딱히 달라진 거 없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CE:BA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안 오셨고 다음으로 COM_ON장님 말씀해 주세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보고할 건 크게 없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COFA장님 말씀해 주세요.

[CMD장/COFA장] 네 저번 회의 이후로 2명 신입 회원 뽑았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악성코드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기/악성코드장] 저희는 3월 초에 신입 부원 모집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3월 중순에 연합공연 참가자를 추가적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교육학과 밴드 음악교육과와 연합 공연이 있을 계획이어서 이번 주부터 합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Deep:Running장님 오늘 결석하셨고, 그다음에 HFS장님 말씀해 주세요.

[HFS장] 네 저희 동아리 3월 2일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인준 받은 거는 아마 4월 5일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현재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같이 해화 알레에서 클라이밍 하고 있고 동아리원은 16명입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안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질의사항 있으시면 본인 소속 먼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논의 안건

1. 대동제 부스 도우미

[정학생회장] 다음 논의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논의 안건이 총 6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대동제 부스 도우미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크게 어떻게 우리가 정하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도우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회로 그칠 것인지, 확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정하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생각하실 시간이 있어야 할까요? 도우미 범위를 학생회나 확운이나 전체 학생으로 잡자는 의견 말고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CMD장/COFA장] 부스 도우미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정학생회장] 이제 저희가 사범대 학생회에서 주점을 운영할 건데 그런 주점 서빙하거나 요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1학년 과대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정학생회장] 네.

[1학년 과대표] 부스 도우미는 보통 몇 명 정도 필요한가요?

[정학생회장] 저도 이번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작년에 6명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학년 과대표] 아 네.

[정학생회장] 그러면 간단하게 투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 채팅창을 열어서서 도우미 범위를 학생회로 국한하여야 한다면 의견은 1번, 확대 운영위원회 멤버로 국한되어야 한다면 의견을 가지신 분은 2번, 전체로 해야 한다 3번,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범위를 얘기하고 싶다 하면은 4번, 기권한 다는 5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 채팅으로 '대동제 부스 도우미 범위'에 대해 투표 받는 중)

[정학생회장] 네, 1번 2표, 2번 0표, 3번 9표, 4번 0표, 5번 0표로 대동제 부스 도우미 범위를 전체 학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강제로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우미를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범위로 하든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2. 짝조 이벤트

[정학생회장] 다음 2번 짝조 이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정하는 건 아니고 이벤트 종류를 한번 정해보려고 하는데 이벤트 종류로는 작년에 아마 어떤 특정한 인형을 가지고 울전이랑 명륜이었나 그 인형을 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 지원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번에 코로나도 끝난 김에 조금 더 활동적인 조금 더 활발한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걸로 계획을 바꾸고 싶어서, 짝조끼리 가서 인생네컷을 찍는다던가, 밥 먹는 사진을 같이 찍는다든가 해서 총미션 5개를 준 다음에 그중에서 3개 정도를 수행하면은 지원금을 준다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실까요?

[사회부장] 혹시 짝후배가 사라진 경우는 어떡하나요?

[정학생회장]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사회부장] 아 네.

[1학년 과대표] 빙고 형식도 괜찮아 보이네요.

[정학생회장] 빙고 형식 3 곱하기 3 빙고가 가장 낫겠죠?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중간에 총무 구래건 학우님 들어오셔서 총원 16명 중 출석 12명 결석 4명으로 정족수 바꾸겠습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이런 빙고나 아니면 미션 형태로 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짝조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3. 선전편집부 개명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선전편집부 개명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학생회 회장단끼리 얘기를 하고 왔는데 선전편집부가 아무래도 올해 지원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개강 총회 직전에 23학번 한 명이 지원을 해서 겨우 한 명을 모집한 상태인데 지금 선편부 인원이 3명이었나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총 3명 맞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지금 학생회 인원이 문행부나 사회부는 다 6명으로 충분히 차 있는데 선편부는 절반이 되 가지고 그래서 새내기들한테 물어봤는데 선편부 이름을 보고 다들 재미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선전편집부가 하는 활동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재밌게,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개명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이번 학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개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개명이랑 같이 역할도 조금 수정하게 된다면 개강총회 때 다음 가을 개강총회 때 인준을 받는 방법으로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개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하시는 분은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전편집부장/COM_ON장] 혹시 개명을 한다고 하면은 학생회 인원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편부 쪽에 좀 업무를 배정해가지고 선편부끼리 이름을 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방식을 진행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정학생회장] 아마 하게 된다면 선편부랑 저희 회장단이랑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집행부장들이랑 회장단이랑 선평부랑 같아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그리고 만약에 개명을 한다면 하는 김에 지금 저희가 홍보 동아리라고 COM_ON이라는 소모임이 있는데 그 소모임도 사실 지금 활동을 많이 안 하고 부원도 한 명도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부원도 거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선전편집부에서 홍보 같은 것도 역할을 담당해서 차라리 대외적인 활동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COM_ON이랑 합친다라는 느낌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명을 하자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고,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논의 안건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개명 방식 같은 거 저희 학생회랑 회장단이랑 그리고 선전편집부랑 같이 개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거는 아니다. 조금 확운도 같이 껴야 한다 아무튼 소모임이다. 집행부 일이면은 확운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저는 일단 선전편집부장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이름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선전편집부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사람이 추가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사람을 적게 하고 오히려 선전편집부에 좀 더 우선권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1학년 과대표] 혹시 의견 내도 괜찮을까요?

[정학생회장] 네네.

[1학년 과대표] 선전편집부 개명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받은

다음에 이제 결정 권한만 이제 선전편집부에서 정하거나 이제 학운이나 학과 학생회로 한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학생회장]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받자는 말씀이신 거죠?

[1학년 과대표]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학생회장] 좋은 생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있을까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혹시 1학년이 이름 때문에 선전편집부를 지원하는 거에 조금 주저함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혹시 좀 더 자세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정학생회장] 그 활동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게 가장 컸을 것 같기도 하고 컸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름을 좀 바꿔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면은 인원 부족 사태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바꾸는 김에 조금 활동하시는 것도 더 대외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COM_ON의 역할을 지금 COM_ON을 없애고 차라리 선전부에서 COM_ON의 역할을 대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개명하자는 의견을 했습니다.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OM_ON은 결국 통합이니까 동아리로서는 폐지 수준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정학생회장] COM_ON은 지금 활동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학기 동안 활동이 아예 없으면 저희가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서 차라리 폐지를 하게 될 거면은 저희 집행부에서 홍보동아리 같은 역할을 맡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압박을 넣어서 작년에 만들어진 게 COM_ON이었는데 지금 활동을 이렇게 안 하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라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전편집부원끼리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COM_ON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제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수순일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 방식

[정학생회장] 다음은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 오프라인 추진인데 이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계속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일단 모두 공강 요일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겹치지 않아서 일부러 온라인으로 편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네 그런 사실 시간적인 문제가 가장 큰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못 보잖아요. 특히 제가 캠을 켜달라 해도 대부분이 안 켜주셔서 그래서 좀 누가 집중을 하고 있고 누가 이거를 듣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거에 집중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어떤 분의 성함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셨고, 집중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딱 마침 사범대에서 저희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메리트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사범대에서 이렇게 혜택 지원을 해주는 김에 안 그래도 온라인으로 했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런 논의 안건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부장] 사범대 학생회에서 지원해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정학생회장] 저희끼리 아직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확운 회의를 진행했을 때 조금 더 재밌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준비 중이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 그게 있는 김에 우리도 차라리 오프라인으로 다시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부장] 저희 현재 회의 형태는 그럼 아예 온라인으로 고정돼 있는 건가요? 원래 작년에는 투표를 받았던 것 같기도 해서요.

[정학생회장] 네 작년에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섞어서 했었는데 이번에 학년별로 공강 요일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1학년이 화목을 나온다 하면, 2학년에 월금에 나오고, 그리고 다른 고학년들도 공강 요일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일부러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이 확대운영 위원의 대부분이 지금 2학년이잖아요. 2학년들 대부분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전부 공강이어서 또 공강에 회의 오라고 부르는 것도 살짝 눈치가 보여서 일부러 온라인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혹시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불가피하게 공강에 회의를 하러 온다던가 아니면은 좀 쉬고 싶은 텀이 있는데 그때 회의를 한다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대신 오프라인으로 하게된다면 회의의 질은 높아지겠죠. 모두 다 같이 그래도 집중하고 회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기/악성코드장] 근데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할 때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정학생회장] 전원이 참석하는 건 아니었고 제가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면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데 그때 결석자가 한 3~4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 수 있는 인원들은 참여를 했어서 그때는 회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서기/악성코드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생회장]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다음 확운 회의는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한번 정해볼까요? 다음 확운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으로 된다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 온라인이라면은 굳이 오지 않아도 되니까 상관없긴 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할 건데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1번을 채팅 올려주시고,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2번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줌 채팅으로 '제6회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 방식' 투표 받는 중)

[정학생회장] 오프라인 9표, 온라인 3표로 다음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최대한 하게 될 건데 혹시나 모두들 요일에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집행부 사업 추진

[정학생회장] 다음으로 집행부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집행부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 문화행사부는 지금 OT랑 새터랑 MT까지 총 3개의 대규모 활동들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충분히 이번 1학기 때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부랑 선전편집부는 어떤 활동 따로 하고 있나요? 계획하시고 있는 거 있나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저희는 대학생한테 유용한 사이트를 모으는 거 잠깐 했었는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 너무 겹쳐 있어서 잠깐 중지하는 상태입니다.

[정학생회장] 그러면 대학생에게 유용한 사이트를 모아서 알려주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던 건가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근데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정학생회장] 근데 저희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들은 바가 없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집행부 보고 시간 때 꼭 이런 행사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생회장] 그리고 또 따로 선전편집부가 계획하고 있는 건 없나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근데 이제 선전 편집부가 과방 관리나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좀 저희한테 바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과방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면 사업 추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과방데이 혹시 선전편집부에서 하는 거였나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네 맞습니다. 특히 작년 종이접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정학생회장] 과방데이 저번 회의 그때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한번 이번 학기에 과방데이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언제쯤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선전편집부장/COM_ON장] 과방데이 일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진 게 없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게 저도 좋아 보입니다. 사업 추진을 과방데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부는 지금 계획하고 게시는 거 아무것도 없나요?

[사회부장] 네 근데 저희는 회의 있을 때마다 인스타 계정에 올라갈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게 있지 않나요?

[정학생회장] 네 제 말은 그거 말고 이제 사회부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더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를 여쭙본 거긴 합니다.

[사회부장] 아직 논의해 본 건 없는데 처음 계획으로는 작년에 진행했던 것처럼 사진전을 열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곧 여름이 오는데 여름 관련해서 만약에 사진 콘텐츠를 연다면 여름 관련

해서 맛있는 사진 찍는 것도 좋은 추억 남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사회부장] 예.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6. 학년별 MT 기획 방식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학년별 MT라고 논의 안건에 넣어놨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작년에는 이제 과대들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학년별 MT를 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22학번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1학기 때 끝나고 여름방학 때 MT를 갔었고, 그리고 2학기 때 또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때 MT를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른 학과들을 보니까 다른 학과들은 학년별 MT도 모두 학생회에서 직접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갈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과대가 진행을 할지 작년처럼, 아니면은 학생회 주관으로 MT를 전부 계획해서 갈지 그거를 조금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 빼고 모두가 다 MT를 학생회에서 주관하더라고요.

[정학생회장] 다른 분들 의견이 없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총 MT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도 오시고 졸업생분들도 많이 부르고 그다음에 모두가 이제 학과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저희 학생회에서 진행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학년별 MT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더 좀 자유롭고 대학교 청춘답게 조금 낭만 있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통제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자유롭고 더 즐길 수 있는 MT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학생회가 개입해버리면은 결국 학생회에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려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학년별 MT를 조금 학년별로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부학생회장] 저도 개인적으로 학년별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다른 학과 얘기를 꺼내셔서 하자면 다른 학과는 예를 들어서 과잠 같은 경우도 다른 학과 1학년 과대랑 관련 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학생회가 맡아서 하기도 하고 굳이 다른 학과의 방식을 그러니까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하기도 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도 만약에 학년별로 MT를 간다고 하면은 전 컴퓨터교육과 학생이 대상이 아니니까 학생회비를 사용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 학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좋아하고 누가 누가 참여를 잘 하고 이런 거를 잘 아는 것도 학년 대표나 학년 소속 학생들일 테니까 이거를 학생회가 나서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론적인 문제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냥 학생회보다는 각 학년에서 맡아가지고 진행한 게 더 효율적이고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아까 구래건 학우님 말씀해주세요.

[총무/Deep:Running장] 네 저희가 1, 2, 3, 4학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1, 2학년에 이제 학년 구분이 된다고 쳐도 3, 4학년으로 가면은 이제 학년이랑 학번이 많이 갈리잖아요. 이제 군대 복학이나 휴학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데 MT를 간다해서 가는 게 솔직히 3~4학년 분들은 MT 기획해서도 이제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실제로도 그런 거 고려하면은 어차피 만약에 학생회가 주관하게 된다고 해도 진짜 안건들이 써져 있는 것처럼 저는 1~2학년 MT 수준만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기획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1학년이 가는 것도 우리가 기획하고, 2학년이 가는 것도 우리가 기획하고 이러면은 3~4학년에 만약에 인원이 적어서 안 간다 이러면은 학생회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각 과대가 알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총무/Deep:Running장] 저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정학생회장] 네.

[총무/Deep:Running장] 만약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체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2학년인데 군대에 가서 이제 복학을 하면은 다른 학우분들은 대부분 학년이 높아져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따로 학년에 대한 카톡방이 존재할까요? 저희가 지금 학번에 대한 카톡방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수업 정보가 어떻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알기 힘들다는 경우가 있다고도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학번보다는 학년에 대한 정렬이 돼 있는 카톡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학생회장] 제 개인적인 느낀 바로는 1, 2학년에 일단 학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3학년에 이번에 다른 어떤 19학번 선배님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혹시 여기 3학년 학생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서기/악성코드장] 저 근데 3학년이나 4학년 선배님들께서 학년 카톡방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으셨는데 추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22학번이 아니면서 2학년이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포함된 2학년 카톡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1학년을 제외하고는 학년 카톡방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개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보고 싶습니다.

[정학생회장]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번 뭐 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한번 컴퓨터교육과 최종 등록자 명단이 왔었는데 그 명단에 학번은 적혀져 있는데 학년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년을 다 이렇게 나누면서 잘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조교님께 학년이 있는 정보를 한번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혹시나 못 알아본다면 제가 좀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러면 명단이란 최대한 보면서 학년별로 토크방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학생회장] 혹시 원준 선배님 몇 학년이신가요?

[정학생회장] 저 3학년인데 아직 휴학 중이라서 이제 재학생 토크방에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1학년 과대표] 혹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정학생회장] 네.

[1학년 과대표] 작년에 22학번과 21학번이 동시에 하는 MT 하나랑, 22학번끼리 하는 MT 하나랑 이렇게 두 번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학생회장] 정확히는 22학번&21학번&20학번 세 학번이서 같이 간 MT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저희 22학번끼리 MT를 한 번 더 갔습니다.

[1학년 과대표] 아 네 감사합니다.

[정학생회장] 혹시 질문의 의도가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1학년 과대표] 일단 만약에 사실 약간 이제 아주 대략적인 이제 제 구상으로는 사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1학기 때 여름방학 때 22학번&23학번 MT 한번 가고, 약간 2학기 끝나고 나서 23 MT를 한 번 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구상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22학번&23학번 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학번이 동시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22학번 분들 중에 학생회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그 MT는 약간 이제 학생회에서 약간 이제 주최를 한 다음에 그 MT를 주최하고 나서 23학번 MT의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23학번끼리 따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지 여쭙봐도 될까요?

[정학생회장] 사실 학년별 MT 지금 투표를 받아서 제가 학년별로 알아서 할지 아니면 학생회에서 관여를 할지 해서 투표를 받은 다음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학생회에서 관여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이 자유롭게 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조금 더 체계적인 MT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학년 과대표] 그렇다면 혹시 약간 이제 두 개 이상의 학번이 MT를 가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학생회가 아니라 학생회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게 된다면 약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학생회장] 작년에 22학번&21학번&20학번 세 학번 갔던 MT는 저희 학생회에서 진행한 게 아니라 각 학년별 과대 3명에서 처음에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각 학년별로 과대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장소 정보 호텔 잡고 하다가 펜션 잡고 하다가 3명에서는 이제 좀 대략적인 계획만 짜고 나머지 인원들을 이제 학년별 모아서 기획팀 같은 거를 만들고 그 기획팀에서 대부분을 진행했습니다. 학생회에서 했던 것은 이제 문화행사부에서 준비하는 OT 행사 그거 하나뿐이지 나머지는 모두 과대랑 기획팀에서 진행했습니다.

[1학년 과대표] 감사합니다.

[정학생회장] 네.

[정학생회장] 혹시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면 지금 바로 학년별 MT를 학생회에서 좀 관여를 해서 갈지 아니면은 각 학년이나 과대나 아니면은 각 학년의 그런 학생들이 주도로 해서 갈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켜주시고 만약에 학생회가 관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면 2번을 채팅창에 적어서 의견을 표시해 주세요.

(쭈름 채팅으로 '학년별 MT 기획 방식'에 대해 투표 받는 중)

[정학생회장] 네 그러면 1번 0표, 2번 12표로 학년별 MT는 학생회에서 관여는 하지 않고 각 학년에게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 단위별 진행 상황 및 기타 안건

[정학생회장] 다음으로는 단위별 진행 상황 및 기타 안건이 있겠습니다. 혹시 기타 안건으로 내실 안건이

있을까요?

[정학생회장] 그럼 혹시 이번 제5차 컴퓨터교육과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꼭 물어봐야겠다. 하실 점 있으면 지금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생회장]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현재 시각 2023년 4월 27일 오후 11시 53분 제5차 컴퓨터교육과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1시 53분 폐회>